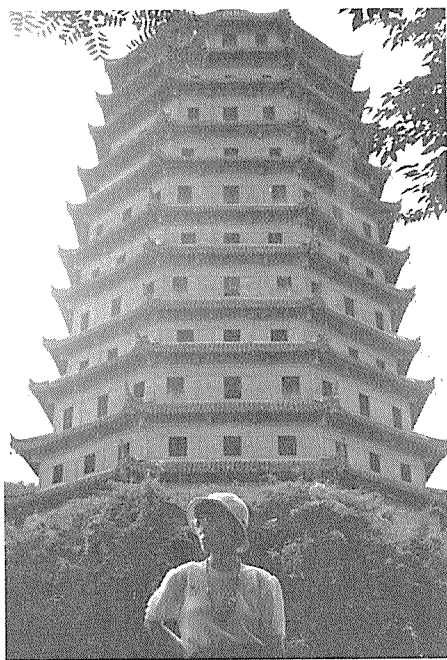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 (7)

배 순 덕

숙소인 항주의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의 오일장과 같은 시골장이 선다 하기에, O군과 함께 자전거를 빌려타고 나갔다가 소나기를 만났다.

좀체로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O군과 헤어져서 어느 허름한 구멍가게 앞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가게안에서 중년의 여자가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쳐다 보더니 손짓을 한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체인지 머니”라고 했다. 거절의 몸짓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보챈다. 비는 계속하여 내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그 날은 하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그냥 돌아왔다.



▲ 北寺塔. 북사탑은 蘇州의 상징이다. 이 탑에서 내려다보면 소주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높이 76m.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혼자서 다시 서호를 찾았다. 새벽잠에 빠진 미녀의 모습은 어떠할까? 맑은 날에도 좋고 비오는 날에도 좋고 안개낀 새벽의 모습 또한 으뜸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몸살이 날 것 같아서였다. 새벽에 거리에 나서니 낮 동안에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었다.

골목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벌레먹은 배추 한 움큼, 무우 몇개, 찌그러진 호박 몇덩이를 놓고 파는 노점상들이 그렇고, 두

부를 사기 위해 바꾸거나 그릇 따위를 들고 길게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그렇다. 그 중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와이셔츠를 입어 깔끔해 보이는 젊은 남자도 있다.

또 하나, 새벽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도로변의 가로수 사이나 잔디밭, 공원등지에서 하나 둘 혹은 여럿이 무리지어 운동을 하는데, 맨손으로 무슨 권법을 하듯이 혹은 막대와 같은 봉을 들고, 혹은 선 채로 눈을 감고 중국무술 영화에서나 보았던 한 장면처럼 모두들 신기한 모습을 연출해 냈다.

허나 뭐니뭐니해도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새벽녘의 푸른 안개와 그 안개의 휘장처럼 편으로 희미하게 자태를 드러내 보이는 광활한 서호의 아름다움이었다. 햇살처럼 부드럽고 여인의 속살처럼 희게 드러나는 호수의 여기저기에 이슬 머금은 연꽃은 서호의 아침을 더욱 눈부시게 했다.

아침식사 시간이 다된 것 같아 서둘러서 되돌아오다 길을 잃었다. 날은 이미 밝았고, 출근을 하는 자전거의 행렬이 즐비하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흐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도로가의 어느 집에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품에 안고서 출근하는 아들을 대문 밖까지 배웅한다. 아들은 자전거에 올라 타며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이내 그 행렬속으로 휩쓸려 갔다.

길을 물으면 대부분이 친절하다. 모두가 사람 사는情有 새록새록 전해져 오는 따뜻한 풍경들이다. 숙소가 건너다 보이는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려는데 도무지 틈이 생기지 않는다. 신호등도 없고 건널목도 따로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손을 들고 건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전거의 행렬이 끝이 없으니 언제 건너야 할지 가늠할 수가 없다. 한 발을 내딛으면 그 사이 자전거가 코 앞에 몰려와 있다.



◀ 大路변의
두부판매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줄을 섰는데
상한 두부로
느껴질 만큼
모판과 두부가
깔끔치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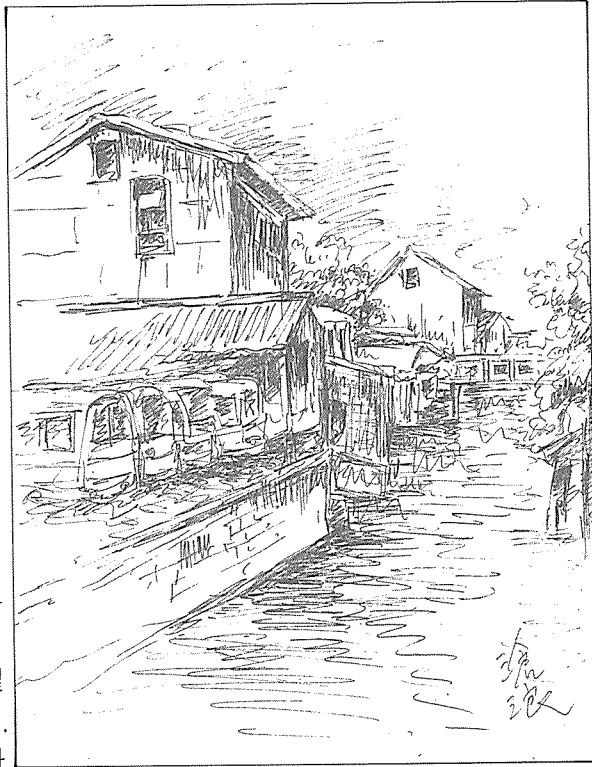
▶ 杭州의 시내풍경.
도시곳곳 어디에서나
물이 흐른다.

안되겠다 싶어 다시 인도로 올라섰다. 그렇게 몇번을 건너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다. 때마침 등이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두리번거리거나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 전혀없이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다.

옆에 무엇이 오고 가는지는 알 바가 아니라는 듯이 그저 앞만 보면서 거리를 가로 질렀다. 그것도 천천히 편안하게. 그러자 자전거가 비켜서 지나갔다.

그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치 흐르는 물결이 돌뿌리를 만나면 그 자리를 살짝 비켜서 다시 합류하듯이 자전거 대열은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해 보았다. 앞만 보고 천천히……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전거들이 자연스럽게 틈을 열어줬고 덕분에 쉽게 길을 건널 수가 있었다. 아하! 길은 이렇게 건너는 것이구나.

특별기 편으로 항주를 출발하여 두시간 십분동안을 하늘을 가로질러서 북경(北



京)시 남쪽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에 도착했다. 이름이 남원(南苑)비행장이다. 남원에 왔으니 이도령과 성 춘향을 만나봐야 할게 아니냐는 7 교수의 농담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마중나온 사람은 스물일곱살의 중국인 청년이다. 북한의 사리원농업대학에서 식물보호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거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얼굴이다. 우리말이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접어들자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바로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식당의 마당과 담장은 산뜻한데 비하여 내부는 퀴퀴하고 어두워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것처럼 보였다. 넓은 홀 가운데에 식탁이 놓여 있고 사방벽은 그림으로 가득하다. 죽자나 펼친 그림들이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고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밥을 먹으면서 구경을 하고 사라는 뜻인 것 같았다.

식당에 양배추 김치가 올랐다. 그것을 꼬집어서 김치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양배추 잎과 고추가루물이 적당히 뒤섞여, 그런대로 우리의 김치맛이 났다. 그래서인지 일행은 모두들 즐거워했다. 몇번을 더 달라고 해도 종업원들은 싫은 기색이 없다.

북경시내로 접어드는 길에는 모처럼의 포만감에 마음이 편안해져, 의자 깊숙히 등을 기대고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단아한 회색빛이다. 이제 막 올라서고 있는 고층빌딩과 아파트단지가 많이 눈에 띈다.

도시 곳곳에는 옛성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古都) 북경에는 유적과 유물이 워낙 많아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古都) 북경에는
유적과 유물이
워낙 많아서인지
시 외곽의 작은 유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인지 시 외곽의 작은 유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았다. 사람들은 그 흔적에 기대어 집을 짓기도 하고 한쪽을 헐어 무얼 심기도 했다.

시내 중심가 영안로(永安路)에 위치한 전문반점(前門飯店)에 여장을 풀고 자금성으로 향했다. 영화 “마지막황제 부의”에서 보았던 자주색의 높다란 담장과 거대한 성문은 광활한 대륙의 건축물 답게 웅장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며 생생한 느낌으로 우리를 압도해 왔다. 72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